

학령전기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지각된 부모의 반응이 아동기 또래 괴롭힘에서 방어자 역할에 미치는 영향: 공감을 매개로

옥 재 진

정 윤 경[†]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아동상담학과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학령전기의 부정정서표현에 대한 부모반응이 공감능력을 매개하여 또래 괴롭힘에서 피해자 방어 행동반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5-6학년 384명이 유아기 시절의 부정정서표현에 대한 양육자의 반응 및 공감, 또래 괴롭힘 참여역할 행동반응에 관한 설문에 참여하였다. 분석결과, 부정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지지반응은 인지적·정서적 공감능력 모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공감능력은 피해자 방어반응에 정적으로, 가해동조 및 방관 반응에 부적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인지 및 정서적 공감능력 모두 방어자 행동반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가해동조반응에는 정서적 공감만이 부적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끝으로, 부정정서표현에 대한 지지반응은 공감능력을 부분 매개하여 또래 괴롭힘 방어자 역할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생애 초기의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이 갖는 의미를 논하였다.

주요어 :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 또래 괴롭힘 참여 역할,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 교신저자 : 정윤경,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E-mail: benijeong@catholic.ac.kr

또래 괴롭힘은 최근 30여 년간 전 세계적으로 발달심리 및 아동·청소년 교육 분야의 주요 연구주제가 되어왔다(Swearer, Espelage & Napolitan, 2009). 교육부에서는 2011년도부터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피해 응답률은 점차 감소하였으나 학교폭력의 양상은 언어폭력,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등과 같이 더 다양화 되고 복잡화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와 관련된 다각적 이해와 객관적 분석을 토대로 한 예방적개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학령기 아동은 관계중심이 부모에서 또래로 확대되고 전이되기 시작하면서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데(Furman & Buhrmester, 1985) 이 시기의 또래 관계는 삶의 만족도(이현주 & 권수정, 2013; Nickerson & Nagle, 2004)와 비행 및 내재화 문제(김보영 & 장은비, 2015) 등에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을 습득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Kostelnik, 1998). 하지만 공교롭게도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피해율은, 2018년도 학교폭력 전수조사 결과 상, 중·고등학생보다 약 4배 높은 실정으로 실효성 있는 개입이 요구되고 있고, 동시에 학교폭력의 가해 및 피해경험이 중·고등학교에 비해 단기적인 특성이 있어(조영일, 2013) 학령기가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 대상의 또래 괴롭힘 현상과 관련된 심리적 기제를 검증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에서 개인 역할과 관련된 내적·외적 변인으로 공감과 학령전기 시기 회고된 부모의 정서반응양식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또래 괴롭힘(Bullying)은 한 명이나 여러 명의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

으로 신체적, 언어적, 관계적(정서적)인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한다(Olweus, 1978; Macklem, 2003). 또래 괴롭힘에 관한 연구는 초기에 가해자와 피해자 중심의 연령, 성별, 인기와 같은 개인적 배경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맥락 등의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왔으나(심희옥, 2003; 이은주, 2001; Olweus, 1993), 점차 그들과 항상 공존하는 주변인들을 포함한 집단의 역동적 과정을 고려해야 함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집단 맥락적 연구가 이루어졌다(심희옥, 2005; 차윤희, 2005; Nesdale & Scarlett, 2004; O'Connell, Pepler & Craig, 1999; Salmivalli & Voeten, 2004; Sutton & Smith, 1999).

Salmivalli 등(1996)은 핀란드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또래 괴롭힘에 반응하는 행동을 평가하여 주변인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조력자(assistant)는 가해자를 도와 가해자의 괴롭힘 행동에 직접 참여하고, 강화자(reinforcer)는 괴롭힘 행동을 부추기는 욕설이나 야유 같은 행동을 하면서 가해행동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방관자(outsider)는 괴롭힘을 목격하더라도 개입하지 않고 물러나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 방어자(defender)는 가해자를 공격하거나 어른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피해자를 위로하는 행동을 하여 상황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한다.

가해자의 괴롭힘 행동은 보통 지위와 힘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데, 이때 주변인들의 반응에 의해 또래 괴롭힘이 심해지거나 감소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Gini, Pozzoli, Borghi & Franzoni, 2008; Salmivalli, Voeten & Poskiparta, 2011). 즉 가해행동에 동조하거나 가해행동을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방관행동은 가해행동을 지지하여 정적강화 시킨다. 반면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가해자에 맞서 피

해자를 보호하거나 위로하는 등의 방어행동은 가해행동의 강화를 제지할 수 있다. 즉 또래 괴롭힘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방어행동은 가해자가 자신의 힘에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함을 인지하게 하여 또래 사이에서 자신의 힘을 행사하고자 하는 정적강화를 끊게 하고, 피해자의 적응을 도와 긍정적 또래관계 형성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 있어 그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송경희, 2017; Sainio, Veenstra, Huitsing, & Salmivalli, 2010). 이처럼 가해자의 후속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어자의 심리적 특성을 찾는 것은 또래 괴롭힘 상황을 이해하고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방어자 역할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변인으로 공감(오인수, 2010; 김혜리, 2013; Caravita, Di Blasio & Samivalli, 2009; Gini et al., 2008), 정서조절(Maeda, 2004), 또래지위(Galván, Spatzier, & Juvonen, 2011), 공격성(오인수, 2010), 사회적 자기효능감(이승연, 2014; Barchia & Bussey, 2011), 도덕적 판단(Gini, Pozzoli, & Hauser, 2011) 등 다양한 변인들이 연구되어져 왔는데, 이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이 공감이다. 가령, 영국의 9-10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과 관련된 경험적 연구에서 방어자는 피해자와 가해자 보다 공감능력이 높았다(Warden & Mackinnon, 2003). Bengtsson과 Johnson(1992)은 방어행동에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서로 다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주장하였는데, 오인수(2010)의 연구에서도 피해자를 돕는 방어 행동반응은 공감, 특히 정서적 공감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김혜리(2013)의 연구에서도 방어집단이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 점수가 모두 높았으며, 특히 방어집단의 정서적 공감 점수가 방관이나 동조 집단보다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지적 공감 수준은 방어자, 가해자, 동조자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선행연구들에서 공감과 방어행동에 있어 성차가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방어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거나(Rigby & Johnson, 2006; Salmivalli et al., 1996), 남학생의 경우 정서적 공감만이, 여학생의 경우는 인지적·정서적 공감이 모두 방어행동반응과 정적상관이 나타나기도 하였다(오인수, 2010). 이처럼 또래 괴롭힘 주변인 행동 반응과 공감의 관계는 성별, 공감의 하위차원, 참여역할 또는 두 변인 간 상호작용 등에 따라 다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도 각 하위변인에 따른 결과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심리학에 ‘공감(empathy)’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독일의 심리학자 Lipps(1903)는 공감을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자신이 처한 것으로 생각하여 같은 정서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후 공감은 학자마다 그 의미가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며, 초기에는 공감을 다른 사람의 정서경험을 지각하고 그에 부합하는 정서를 대리적으로 경험하는 정서적인 측면으로 정의하거나(Bryant, 1982; Hoffman, 1984; Eisenbeg & Miller, 1987) 타인의 말, 행동, 표정 등을 통해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입장을 고려하는 인지적 능력으로 정의하였다(Borke, 1971; Hogan, 1969).

Davis(1980)은 공감을 다차원적이고 변별 가능한 4가지 하위요소의 집합적인 능력으로 보았다. 하위요인으로는 인지적 공감에 관련해서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는 능력인 ‘관점취하기(persperctive taking)’, 가상적인 상황의 인물 또는 행동에 전위시켜 보는 경향을 나타내는 ‘상상하기(fantasy)’가 있고, 정서적 공감능력으

로는 불행한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타인 지향적 동정을 느끼는 ‘공감적 관심(empathy concern)’, 타인의 고통을 보면 마음의 불편감과 자기 지향적인 고통을 느끼는 ‘개인적 고통(personal distress)’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Davis(1980)의 공감 개념 중 정서적 공감의 하위 요인인 ‘개인적 고통’은 타인의 고통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은 자기 지향적 고통을 나타낸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공감능력을 측정하는 요소로는 보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Lawrence, Shaw, Baker, Baron-Cohen, & David, 2004). 또한 인지적 공감 하위척도 중 상상하기가 공감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Baron-Cohen & Wheelwright, 2004). 이에 Baron-Cohen과 Wheelwright(2004)는 위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공감과 관련한 병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감을 재 개념화 하는데, 공감을 다른 사람의 마음과 사고를 인지적·정서적으로 인식하고 해석하여 적절하게 반응하는 사회인지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다시 말해 공감은 타인의 생각과 정서를 이해하고 공유하도록 하여 타인과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도록 도우며 다른 사람을 염려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사회적 관계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실제로 공감은 타인을 도와주려는 이타행동을 촉진하고, 공격성이나 반사회적 행동은 감소시키는 중요한 정서기제로 대두되어왔다(Eisenberg & Miller, 1987; Wentzel, Filisetti & Looney, 2007). 특히 공감은 학교폭력장면에서 피해자를 돕는 방어행동을 예측하고 괴롭힘 행동을 억제하는 유의한 변인임을 여러 연구 결과들에서 보여주고 있다(이희경, 2002; 신나민, 2012; Cappadocia, Pepler, Cummings, & Craig,

2012; Gordon, Stephen, Carole, Adam, & David, 1995).

그렇다면 또래 괴롭힘과 관련한 중요한 개인 내적 변인인 공감능력의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생애 초기 양육자는 아기와의 애착관계를 통해 부정정서를 경감시켜주고, 긍정정서 표현을 모델링해 주거나 선택적인 강화를 시켜준다(Lamb & Malkin, 1986). 또한 정서적 전염, 공감, 사회적 참조의 과정들을 통해 정서에 대한 직접적인 안내를 돕고,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과소한 정서적 경험을 하지 않도록 외부적 양육환경까지 조정한다(Stern, 1985; Thompson, 1987; Walden, 1991). 자녀가 자라감에 따라 부모는 직·간접적인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하여 정서의 사회화에 초점을 두는 데, 사회·문화적 요구, 아이의 성장한 정서적 자기조절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서행동에 대한 타당하고 명료한 기대를 분명히 한다(Lewis & Michalson, 1983; Miller & Sperry, 1987; Saari, 1990). 노지영과 정윤경(2010)은 정서가 개인적 기질 및 정서적 특성과 사회적 환경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사회적 맥락에서 조절되는 경험을 통해 구성되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본다.

Eisenberg 등(1998)이 제시한 정서사회화의 발견적 모델에 따르면, 자녀는 자신의 정서 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 정서에 관한 대화, 부모의 정서표현 등을 통해 사회화되어지는데, 무엇보다 자녀의 정서 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자녀의 정서적 상호작용에 대한 인지적 도식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밝혔다. 특히 자녀의 부정적 정서가 긍정적 정서보다 더욱 중요한 조절 대상으로서 정서사회화에 관한 풍부한 기회를 제공하기에,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능력과 정서 지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본다(Fabes, Poulin, Eisenber, & Madden-Derdich, 2002). 실제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지지적 반응은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보다 더 나은 사회적 기능을 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지현, 2015; Denham et al., 1997; Eisenberg et al., 1996; Gottman, Katz & Hooven, 1996).

Fric과 Morris(2004) 또한 유아기를 공감 능력을 포함한 정서 사회성 발달의 결정적 시기로 제안하는데, 이는 뇌의 발달적 측면과 관련하여, 타인의 표정, 몸짓, 태도 등을 공명하여 정서전염과 같이 자동적으로 유발되는 정서적 공감이 변연계 체계가 주로 기능하는 영·유아기에 발달되고, 신피질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유·아동기에 타인의 생각, 의도, 바람 등을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이 발달한다(Chakrabarti & Baron-Cohen, 2006)는 주장과 일관된 입장이다. 뇌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일어날 때 관여하는 뇌의 영역이 서로 상이함이 밝혀지고 있는데, 정서적 공감이 일어날 때 관여하는 뇌의 영역은 뇌도엽, 편도체, 하측 전두회 등 이고(Shamay-Tsoory, 2009), 인지적 공감이 일어날 때는 전전두 피질 영역과 후측 상측두고 및 측도-두정 연결부 등이 관여한다는 점(박민, 이승복, 김혜리 & 윤효운, 2007; Carrington & Bailey, 2009) 이를 또한 지지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영유아기의 부모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공감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에 본 연구는 5·6학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령전기의 부모의 정서사회화 양육 행동을 회고하여 측

정함으로써, 후기 아동기의 또래 괴롭힘에서 방어자 행동반응과 관련한 주요 변인인 공감능력의 근원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공감능력에 영향을 주며, 공감능력이 또래 괴롭힘의 역할 유형에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입증하고 있다. 하지만 생애 초기의 부모에 의한 정서사회화와 공감능력, 또래 괴롭힘 참여역할의 세 변인 간의 관련성이나 경로적 설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공감능력을 매개로 하여, 또래 괴롭힘 주변인 역할 중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방어행동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심리내적 경로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각 변인들에 대한 성차를 확인하고,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인지적·정서적 공감능력, 또래 괴롭힘 주변인 행동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탐색하여, 부모에 의한 정서 사회화의 초기경험이 또래 괴롭힘 행동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 연구문제 1. 공감능력, 또래 괴롭힘 참여역할 반응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부정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인지적·정서적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인지적·정서적 공감능력이 또래 괴롭힘 주변인 행동반응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4. 부정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또래 괴롭힘 주변인 행동반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5. 부정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또래 괴롭힘에서 방어자 행동반응의 관계를 공감능력이 매개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또래 괴롭힘은 후기 아동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로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 되어왔으며,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인인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측정도구는 아동의 4~12세 경험을 토대로 제작되었다. 또한 공감능력의 발달 순서 상 영·유아가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이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시기임을 고려할 때, 자신의 유아기에 대한 회고가 가능하고 동시에 현재 또래 괴롭힘의 참여자인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을 설문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서울·경기 소재의 초등학교 5-6학년 남학생 202명, 여학생 18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분석자료로 적합하지 않은 50개의 설문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334개의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자료 중 남자가 167명(50%), 여자는 167명(50%)이었다.

측정도구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

Fabes, Eisenberg와 Bernzwing(1990)이 개발한 CCNES(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 Scale)는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보일 경우에 부모의 반응유형을 측정하는 부모 보고형 척도

이다. 부모의 직접 보고 보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반응이 자녀의 정서, 성격, 행동 특성과 더 강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Rohener & Pettengil, 1985)에 따라 김희정(1995)이 번안·수정한 것을 아동보고식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회고된 지각 양상을 근거로 한 타당한 연구(Molnar, Buka, & Kessler, 2001; Walsh, Macmillan, & Jamieson, 2003)들이 실행되어져온 바, 본 연구에서도 학령전기의 부모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아동이 회고하는 형식으로 문항을 다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12가지의 가상적 상황(예: 유치원 시절, 애지중지하는 물건을 잃어버려서 내가 울고 있는 경우)에 따른 6개의 부모 반응 범주로 구성되었으며, 총 72문항이다. 부모의 반응유형은 자녀의 부정정서표현을 수용하고 격려하는 표현격려 반응(Expressive Encouragement)(예: 속상할 땐 울어도 괜찮다고 말하셨다), 자녀의 기분이 나아질 수 있는 전략들을 사용하여 돕는 정서초점 반응(Emotion Focused Reaction)(예: 재미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내 주의를 바꾸셨다), 부정정서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문제초점 반응(Problem Focused Reaction)(예: 나에게 찾아보지 않은 장소를 생각해 보게 하셨다), 자녀가 부정정서를 표현할 때 불안과 괴로움을 느끼고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심리적 고통 반응(Distress Reaction)(예: 나에게 부주의한데다가 울기까지 한다고 화를 내셨다), 신체적·언어적 처벌을 통해 자녀의 부정정서를 감소시키려는 처벌 반응(Punitive Reaction)(예: 내가 부주의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마련이라고 말하셨다), 아동이 경험하는 부정정서의 심각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타당성을 무시하는

과소평가 반응(Minimizing Reaction)(예: 내가 지나친 반응을 하고 있다고 말하셨다.)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Eisenberg 등(1998)은 이들 6개 범주를 지지적 반응(표현격려·정서초점·문제초점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심리적 고통· 처벌·과소평가 반응)의 2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고 Likert식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지지적 반응이 .96 비지지적 반응이 .90 이었다.

공감

Bron-Cohen과 Wheelwright(2004)가 성인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EQ(Empathy Quotient)를 Auyeung 등(2009)이 4세에서 11세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용 공감척도 EQ-C로 수정·개발하였고, 이를 차화정 등(2011)이 타당화한 자기보고형 한국판 EQ-C를 사용하였다. Bron-Cohen과 Wheelwright(2004)가 EQ 척도를 개발할 당시에는 EQ 척도의 구성요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요인분석 결과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사회적 기술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는데(Lawrence et al., 2004; Muncer & Ling, 2006), 본 연구에서는 총 27문항 중 인지적 공감(예: 나는 누군가 대화에 참여하고 싶어 하면 쉽게 알아챌 수 있다.)과 정서적 공감(예: 나는 다른 사람이 기분 나빠하면 걱정스러워 한다.)에 관련된 17개의 문항만 사용하였으며, Likert식 4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점수화는 Auyeung 등(2009)의 방식을 따라, '매우 그렇다' 2점, '약간 그렇다' 1점, '약간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는 0점으로 점수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

는 인지적 공감이 .78 정서적 공감 .82 이었다.

또래 괴롭힘 참여역할

또래 괴롭힘 주변인 역할 참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Salmivalli 등(1996)이 개발한 PRQ(Participant Role Questionnaire)를 서미정(2008)이 번안·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자기보고와 또래지명 방식으로 역할을 측정한 반면, 서미정(2008)은 자기보고식으로 재구성하였으며 PRQ의 동조와 강화 행동의 유사성이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조력자와 강화자를 함께 동조집단 하나로 보아 또래 괴롭힘 참여역할을 가해자, 피해자, 동조자, 방관자, 방어자로 재 유형화하였다. 또한 참여역할은 고정되지 않고 상황과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심희옥, 2005; O'Connell, Pepler & Craig, 1999), 참여유형이 상호 배타적인 범주적 접근이 아닌 차원적 접근에 따라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안효영, 진영은, 2014)을 고려하여, 각 참여역할을 차원적 방식으로 탐색하고자 했다. 문항은 각 요인별로 6문항으로 구성되었고 Likert식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해동조, 방관 및 피해자 방어행동 반응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조자(예: 반 친구들이 한 아이를 괴롭힐 때 옆에서 부추긴다), 방관자(예: 또래 괴롭힘 상황을 보고 모른 채한다), 방어자(예: 괴롭힘 당하는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 괴롭힘 상황을 선생님께 말씀드린다) 문항만 사용하였고,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가해 동조 반응이 .77 방관 반응은 .94 피해자 방어반응 .90 이었다.

연구절차

본 연구의 취지와 계획에 대해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File No. 1040395-201801-10)을 받았다. 이후 서울·경기 소재의 초등학교 3곳을 임의 선정하여 2018년 2월 중 약 2주간에 걸쳐 5, 6학년 각 학급 담임교사와 학생들에게 연구의 취지, 조사 내용과 방법, 유의사항을 설명한 후, 설문조사에 대한 부모와 학생 본인의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은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 72문항, 공감능력 17문항, 또래괴롭힘 주변인 행동반응 18문항으로 총 107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설문 소요 시간은 약 30분 정도 되었다. 수거된 설문지 총 384부 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무성의하게 응답된 50부를 제외하여 남학생 167명, 여학생 167명, 총 334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각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피어슨(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남녀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차이검증 분석을 하였다. 셋째, 각 주요 변인들의 하위요인 간의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공감능력을 매개로 또래괴롭힘 참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도 검증

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각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첨도, 왜도를 산출하고,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자녀의 부정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지지적 반응 평균은 3.40, 비지지적 반응 평균은 2.10으로, 지지적 반응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지지적 반응은 공감능력 과 유의한 정적 상관($r=.39, p<.001$)이 있었다. 또한 공감능력은 방어반응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r=.58, p<.001$), 가해동조반응($r=-.22, p<.001$)과 방관반응($r=-.36, p<.001$)에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부정정서에 대한 비지지적 반응은 가해 동조 반응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r=.25, p<.001$).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공감능력, 또래 괴롭힘 주변인 행동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기술 통계치 및 성별에 따른 각 변인들 간의 차이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정서적 공감 능력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t = 2.80, p<.01$), 또래 괴롭힘의 참여역할에 있어 가해동조반응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t = 2.70, p<.01$).

표 1.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334)

	1	1-1	1-2	1-3	2	2-1	2-2	2-3	3	3-1	3-2	4-1	4-2	4-3
1	1													
1-1	.92***	1												
1-2	.97***	.84***	1											
1-3	.94***	.78***	.89***	1										
2	-.10	-.05	-.11	-.10	1									
2-1	-.21***	-.16**	-.23***	-.18***	.90***	1								
2-2	-.01	.04	-.02	-.00	.90***	.71***	1							
2-3	.00	.06	-.01	-.03	.88***	.69***	.71***	1						
3	.39***	.32***	.40***	.42***	.06	-.01	.08	.10	1					
3-1	.31***	.28***	.33***	.35***	.16	.09	.19***	.16**	.85***	1				
3-2	.36***	.29***	.38***	.39***	-.03	-.09	-.01	.02	.90***	.53***	1			
4-1	-.11	-.10	-.10	-.12*	.25***	.25***	.20***	.20***	-.22***	-.05	-.30***	1		
4-2	-.18	-.10	-.20**	-.22**	.20	.23**	.18**	.16**	-.36***	-.21**	-.39**	.41***	1	
4-3	.42	.35**	.42**	.42**	-.05	-.09	-.04	-.03	.58***	.38**	.60**	-.21***	-.55***	1
M	3.40	3.19	3.57	3.45	2.10	1.86	2.26	2.13	2.75	2.64	2.86	1.74	1.80	3.27
SD	.81	.88	.92	.80	.56	.63	.57	.56	.36	.36	.48	.67	.83	.96
왜도	-.43	-.22	-.54	-.36	.75	.43	.98	.71	-.03	-.11	-.17	1.17	.86	-.03
첨도	.00	-.20	-.08	-.16	.11	.06	.87	.22	.46	.52	.11	1.98	.16	-.41

* $p < .05$, ** $p < .01$, *** $p < .001$

지지적 반응 1-1 표현격려 1-2 정서초점 1-3 문제초점
 비지지적 반응 2-1 심리적 고통 2-2 처벌 2-3 과소평가
 공감능력 3-1 인지적 공감능력 3-2 정서적 공감능력
 4-1 가해동조반응 4-2 방관반응 4-3 피해자 방어반응

표 2. 성별에 따른 각 변인들의 차이 검증 (N=334)

	전체(N=334)	남자(N=167)	여자(N=167)	t
	M(SD)	M(SD)	M(SD)	
인지적공감	2.64(.36)	2.65(.37)	2.64(.35)	.42
정서적공감	2.86(.47)	2.80(.53)	2.94(.44)	-2.80**
가해동조	1.74(.67)	1.84(.74)	1.64(.59)	2.70**
방관	1.80(.82)	1.76(.86)	1.85(.80)	-.96
피해자방어	3.27(.96)	3.32(.96)	3.21(.95)	1.01

** $p < .01$ *** $p < .001$

주요변인들 간의 회귀분석

주요 변인들의 하위요인 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3, 4, 5에 제시하였다. 부모의 지지적 반응은 공감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으며($\beta=.40, t=7.45, p<.001$), 인지적 공감($\beta=.31, t=5.85, p<.001$), 정서적 공감능력($\beta=.36, t=6.84, p<.001$)에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부모의 비지지적 반응은 인지적 공

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6, t=2.88, p<.01$). 공감능력은 또래 괴롭힘 주변인 행동반응에 모두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피해자 방어반응에 정적으로($\beta=.58, t=12.71, p<.001$), 가해동조반응($\beta=-.22, t=-4.09, p<.001$), 방관반응($\beta=-.36, t=-6.98, p<.001$)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능력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인지적 공감능력은 피해자 방어반응에 정적으로($\beta=.38, t=7.44, p<.001$),

표 3. 자녀의 부정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공감능력 간의 회귀분석 (N=334)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t	R^2	ΔR^2	F
지지반응	공감	.40	7.45***	.15	.15	55.45***
	인지공감	.31	5.85***	.10	.09	34.25***
	정서공감	.36	6.84***	.13	.13	46.71***
비지지반응	공감	.06	1.06	.00	.00	1.16
	인지공감	.16	2.88**	.03	.02	8.29**
	정서공감	-.03	-.47	.00	.00	.22

** $p<.01$ *** $p<.001$

표 4. 공감능력과 또래 괴롭힘 주변인 행동반응 간의 회귀분석 (N=334)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t	R^2	ΔR^2	F
공감	가해동조	-.22	-4.09***	.05	.05	16.72***
	방관	-.36	-6.98***	.13	.13	48.75***
	피해자방어	.58	12.71***	.34	.33	161.45***
인지공감	가해동조	-.05	-.99	.00	.00	.97
	방관	-.21	-3.84***	.04	.04	14.74***
	피해자방어	.38	7.44***	.14	.14	55.32***
정서공감	가해동조	-.30	-5.78***	.09	.09	33.37***
	방관	-.39	-7.76***	.15	.15	60.20***
	피해자방어	.60	13.67***	.36	.36	187.02***

*** $p<.001$

표 5. 자녀의 부정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또래 괴롭힘 주변인 행동반응 간의 회귀분석 (N=334)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t	R^2	ΔR^2	F
지지반응	가해동조	-.11	-1.93	.01	.00	3.71
	방관	-.18	-3.24***	.03	.03	10.50***
	피해자방어	.43	8.38***	.18	.18	70.21***
비지지반응	가해동조	.25	4.58***	.06	.06	20.97***
	방관	.19	3.53***	.04	.04	12.48***
	피해자방어	-.05	-.90	.00	.00	.82

*** $p < .001$

방관반응에는 부적으로($\beta = -.21, t = -3.84, p < .001$)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가해동조 반응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정서적 공감능력은 피해자 방어반응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 = .60, t = 13.67, p < .001$), 가해동조반응($\beta = -.30, t = -5.78, p < .001$), 방관반응($\beta = -.39, t = -7.76, p < .001$)에 각각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지지반응은 또래 괴롭힘 주변인 행동반응 중 피해자 방어반응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beta = .43, t = 8.38, p < .001$), 방관반응($\beta = -.18, t = -3.24, p < .001$)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가해동조반응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부모의 비지지 반응은 가해동조 반응과($\beta = .25, t = 4.58, p < .001$), 방관반응에 미치는 영향($\beta = .19, t = 3.53, p < .001$)이 정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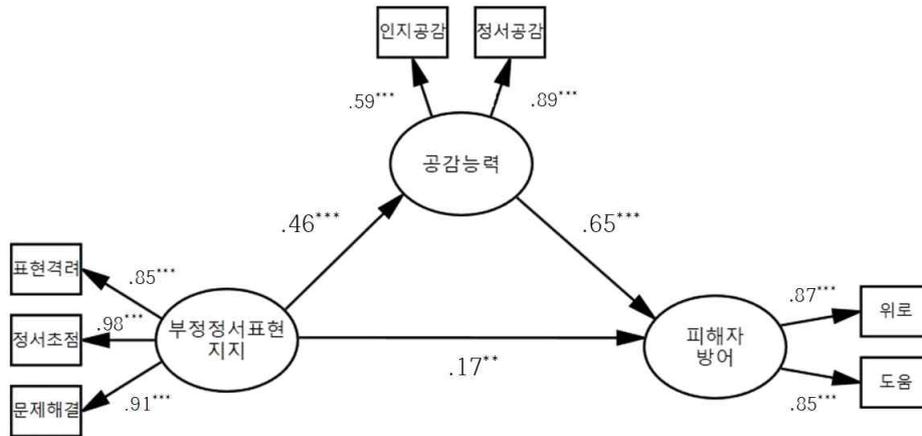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피해자방어 반응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매개효과 검증

자녀의 부정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지지반응이 공감능력을 매개로 또래 괴롭힘 방어자 행동반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방정식 모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먼저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확인한 후, 공감능력이 완전매개하는지 또는 부분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완전 매개효과를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두 모형의 적합도는 홍세희(2000)의 연구를 토대로, 적합도 지수 NFI, TLI, CFI는 .90이상인 경우 모형을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RMSEA의 경우 .05 이하면 아주 좋은 모형, .08이하면 좋은 모형, .10 이하면 보통 수준으로 보았다. 두

표 6. 모형의 적합도 비교

	χ^2	df	NFI	TLI	CFI	RMSEA
연구모형(부분매개)	20.35	11	.99	.99	.99	.049
경쟁모형(완전매개)	26.58	12	.98	.98	.99	.059



** $p < .01$, *** $p < .001$

그림 1.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및 요인부하량(주. 표기된 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임)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의 경우 $\chi^2(df=11, N=334)=20.35$, NFI=.99, TLI=.99, CFI=.99, RMSEA=.049로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경쟁모형의 경우 $\chi^2(df=12, N=334)=26.58$, NFI=.98, TLI=.98, CFI=.99, RMSEA=.059로 나타나 연구모형과 마찬가지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두 모형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두 모형 간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배병렬, 2011).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χ^2 값의 차이는 6.23으로, 자유도의 차이가 1일 때 유의수준 .05에서 두 모형의 적합도 차이 임계치 3.84를 넘는다. χ^2 값이 더 작은 점과 전반적인 모형 적합도 지수를 고려할 때 연구모형(부분매개)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모형을 본 연구의 최종모형으로 보고, 주요변인 간의 경로계수 및 요인 부하량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자녀의 부정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지지적인 반응은 공감능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eta=.46, p<.001$), 공감능력은 또래 괴롭힘 참여행동반응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65, p<.001$). 또한 자녀의 부정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지지반응이 또래 괴롭힘 방어행동반응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eta=.17, p<.01$). 즉 부정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지지반응은 공감능력을 부분 매개하여 또래괴롭힘 방어반응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최종모형의 매개효과의 유의도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통해 간접효과를 추정한 결과, 표준화된 간접효과 계수 .30으로 $p<.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또래 괴롭힘 주변인 참여행동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공감능력을 매개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성차 및 각 하위 변인들 간의 관련성과 영향력을 탐색해보았으며, 매개변인의 유의성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

를 중심으로 한 논의 점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정서적 공감능력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가해동조반응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에 관한 국내외 다른 연구결과들(심희옥, 2008; 오인수, 2010; Gini, Pozzoli, Borghi, & Franzoni, 2008; Samlivalli et al., 1996)과 일치한다. 이는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이 자녀의 정서적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 공감능력이 가해동조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임이 드러난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와 선행연구들(김혜리, 2013; 신나민, 2012; Sutton & Keogh, 2000)을 고려할 때, 남아가 여아보다 정서적인 공감능력이 유의하게 낮고 가해동조반응이 유의하게 높은 원인은 남아의 기질적 특성 외에도 유독 남아의 정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거나 스트레스적 반응을 보이는 성 차별적인 양육태도가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둘째,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지지반응과 공감능력은 정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공감능력은 가해동조 반응과 방관 반응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고 피해자 방어 반응에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하지만 공감능력의 하위 요인별로 살펴볼 때, 인지적 공감능력은 가해동조 반응과는 관련이 없었고, 방관 반응과는 부적상관을, 피해자 방어반응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하지만 정서적 공감능력은 가해동조반응 및 방관방응과 부적상관을 보이며 피해 방어반응과는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비지지적 반응은 가해동조 반응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실제로 회귀분석에서는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부모의 지지반응이 공감능력 및 그 하위요인들 모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반면 부정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비지지적 반응은 정서적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영유아기의 정서사회화 양육행동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능력과 정서지각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Fabes, Poulin, Eisenberg, & Madden-Derdich, 2002) 지지한다. 즉 생애 초기의 자녀의 부정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수용과 지지적 반응은 아이에게 정서를 사회화 할 수 있는 풍부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해주게 되고, 이는 아동이 정서와 관련된 도식을 형성하게 하여 자신과 타인의 정서인식 능력을 발달시킴으로써 공감능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 이는 또한 Chakrabarti와 Baron-Cohen(2006)의 주장과 같이 변연계 체계가 주로 기능하는 영·유아기에 정서적 공감능력이 발달하고, 신피질이 발달하는 아동기에 타인의 생각, 의도, 바람 등을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이 발달하는 것과 관련지어 이해될 수 있겠다. 더불어 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 적용 연구(김광수, 김해연, 2010)에서 인지적 공감능력은 향상되었으나 정서적 공감능력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음을 보여 주는 선행연구와 함께, 영유아기가 또래 괴롭힘 참여반응에 있어 중요한 변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정서적 공감능력이 발달하는 민감한 시기임을 시사한다.

아울러 공감능력은 또래 괴롭힘 주변인 행동반응 중 가해동조 및 방관 반응에 부적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피해자방어 반응과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공감능력 및 또래 괴롭힘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이희경, 2003; Caravita, Di Blasio, & Salmivalli, 2009; Nickerson, Mele, & Princiotta, 2008)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인지적 공감능력은 가해동조

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정서적 공감능력 만이 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 역시 선행연구들(김혜리, 2013; 신나민, 2012; Sutton & Keogh, 2000)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방어행동 반응은 가해동조반응과는 다르게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능력 모두가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높은 상관성이 있음이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 함께 또래관계에 있어 친사회적 행동은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Hoffman(1984)의 주장을 지지한다.

아울러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부모의 지지반응이 방관반응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피해자방어 반응에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아동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양육행동은 아이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이러한 조절 경험이 누적되어 만들어진 아이의 정서조절 시스템은 또래장면에서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는 성공경험을 맞보아 친사회적인 행동으로 발전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비지지적 반응은 가해동조반응과 방관반응에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박유경(2009)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정서표현에 대한 비지지적 반응을 받은 아동은 정서인식 명확성이 떨어지고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서인식과 표현이 자기이해와 수용 및 타인의 정서반응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점(Kennedy-Moor & Watson, 1999)을 고려할 때, 부모의 비지지적 반응은 아동의 공감능력 발달을 저해하여 아동이 타인에 대한 공격행동에 쉽게 동조되거나 가해행동을 묵인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음

이 시사된다.

셋째, 자녀의 부정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이 또래 괴롭힘 방어행동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공감능력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부정정서표현에 대한 지지적 반응이 공감능력을 부분 매개하여 또래 괴롭힘 방어행동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에 부정정서표현에 대한 정서사회화 행동이 자신과 타인의 정서인식 능력을 발달시켜 공감능력을 높이고, 보다 더 나은 사회적 기능을 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여러 선행 연구들을(Denham et al., 1997; Eisenberg et al., 1996; Fabes et al., 2001; Gottman et al., 1996) 지지한다. 즉 아이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느끼는 부정적 정서를 부모가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공감해주며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양육행동은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게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정서적 도식과 패턴들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촉진시켜 공감능력 발달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배양된 정서적 능력들은 더 나은 사회적 기능을 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는데, 본 연구결과는 이것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나쁜 평판을 받게 되거나 배척당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를 방어하는 친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게 함을 시사한다. 반면 이것이 결핍된 아동은 사회적 장면에서 관계적·물리적인 공격 행동에 동조하거나 묵인함으로써 반사회적 행동을 지지하는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본 연구는 또래 괴롭힘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에서, 관련 변인 중 하나로 생애 초기의 부모의 정서사회화 양육행동을 확인

하였다.

또한 또래 괴롭힘 예방의 중요한 역할로 대두되는 피해자 방어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인 공감능력에 있어 정서적 공감능력과 인지적 공감능력이 모두 작용됨을 본 연구에서 재확인함으로써, 공감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적 기제를 설명하였다. 이는 또한 향후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이론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다.

더불어 또래 괴롭힘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참여자들의 심리적 요인과 학교 및 가정의 환경적·심리적 변인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는데, 본 연구는 가정에서의 부모의 양육행동 중 아동의 정서사회화에 관련된 양육행동과 공감능력, 학교폭력 참여역할 간의 관련성과 경로적 설명을 제시하였다. 이에 또래 괴롭힘의 근본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는 부모의 구체적인 양육행동을 제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모의 정서 반응 양식을 초등학생이 회고하여 그 관련성을 살펴 본 것으로 그 한계를 지니며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우선 본 연구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공감능력을 매개로 또래 괴롭힘 주변인 행동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또래 괴롭힘 주변인 행동을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측정하였다. 측정대상이 도덕성 및 사회성이 발달한 초등학교 5, 6학년임을 고려할 때 사회적 바람직성이 많이 작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방어행동이 현실과 다르게 과보고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괴롭힘 주변인 행동을 보다 객관적이고 동시에 차원적으로 측정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구조모형은 부분매개로 밝혀졌는데, 이는 또래 괴롭힘 참여 행동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외의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할 것을 시사해준다. 이에 연구자는 공감능력 이외에 공격성, 자기 효능감, 기질 등과 같은 개인내적 심리적 요인과 학급의 풍토,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도, 또래 괴롭힘에 대한 학교의 시스템적 대책의 명시화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들을 후속연구에서 고려하여 또래 괴롭힘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기제를 탐색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8).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8.08.28.자.
- 김광수, 김해연 (2009). 공감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연구*, 22(4), 275-300.
- 김보영, 장은비 (2015).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7), 31-52.
- 김혜리 (2013). 또래괴롭힘 참여역할에 따른 인지적·정서적 공감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4), 1-20.
- 김희정 (1995). 어머니가 지각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동의 대처반응.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지영, 정윤경 (2010).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따른 아동의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표현신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2), 57-71.
- 박민, 이승복, 김혜리, 윤희운 (2007). 마음이론의 신경 기초.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 26(2), 39-62.
- 박유경 (2009).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 반응과 자녀의 정서조절 전략의 관계: 자녀의 정서인식을 매개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병렬 (2011). AMOS 17.0 구조방정식모델링 - 원리와 실제 -. 서울: 청람.
- 서미정 (2008). 방관자의 집단 특성에 따른 또래괴롭힘 참여 역할행동. 아동학회지, 29(5), 79-96.
- 송경희 (2017). 초등학교, 중학교의 도덕 추론과 또래괴롭힘 방어행동: 개인 및 학급수준 특성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나민 (2012). 청소년 또래괴롭힘의 참여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공감 구인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4), 25-45.
- 심희옥 (2003). 아동의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과 교사보고에 따른 문제행동과 유능성: 학년과 성별 비교. 아동학회지, 24(2), 79-92.
- 심희옥 (2005). 또래 괴롭힘과 대인간 행동특성에 관한 횡단 및 단기종단연구: 참여자 역할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6(5), 263-279.
- 심희옥 (2008). 또래 괴롭힘 참여자의 사회적 지위 및 사회적 정서에 관한 연구: 성별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9(3), 191-205.
- 안효영, 진영은 (2014).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 역할 연구동향 및 과제. 열린교육연구, 22(4), 95-117.
- 오인수 (2010). 괴롭힘을 목격한 주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공감과 공격성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23(1), 45-63.
- 오지현 (2015).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공감과 정서조절 방식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4(2), 17-37.
- 이승연 (2014). 중학생의 공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지각된 규준과 또래괴롭힘 방어행동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3), 89-112.
- 이은주 (2001). 공격적 행동의 유형 및 성별에 따른 집단 괴롭힘 가해아동과 피해아동의 또래관계 비교. 아동학회지, 22(2), 167-180.
- 이현주, 권수정 (2013).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또래애착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0), 347-355.
- 이희경 (2002). 공감과 동조가 집단따돌림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16(4), 23-40.
- 조영일 (2013).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특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2), 67-87.
- 차윤희 (2005).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학령기 아동의 역할과 사회적 이해.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화정, 김혜리, 이수미, 엄진섭, 이승복 (2011). 자기보고형 한국어판 아동용 공감지수 (EQ-C) 척도의 타당화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4), 63-81.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uyeung, B., Wheelwright, S., Allison, C., Atkinson, M., Samarawickrema, N., & Baron-Cohen, S. (2009). The Children's

- Empathy Quotient and Systemizing Quotient: Sex Differences in Typical Development and in Autism Spectrum Condition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9(11), 1509-1521.
- Baron-Cohen, S., & Wheelwright, S. (2004). The empathy quotient: An investigation of adults with Asperger syndrome or high functioning autism, and normal sex difference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4(2), 163-175.
- Barchia, K., & Bussey, K. (2011). Individual and collective social cognitive influences on peer aggression: Exploring the contribution of aggression efficacy, moral disengagement, and collective efficacy. *Aggressive Behavior*, 37(2), 107-120.
- Bengtsson, H., & Johnson, L. (1992). Perspective talking,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in late childhood. *Child Study Journal*, 22(1), 11-22.
- Borke, H. (1971). Interpersonal perception of young children: Egocentrism or empathy. *Developmental Psychology*, 8(2), 263-269.
- Bryant, B. (1982).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3(2), 413-425.
- Cappadocia, M. C., Pepler, D., Cummings, J. G., & Craig, W. (2012). Individual motivations and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bystander intervention during bullying episodes among children and youth. *Canadi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7(3), 201-216.
- Caravita, S., Di Blasio, P., & Salmivalli, C. (2009). Unique and interactive effects of empathy and social status on involvement in bullying. *Social Development*, 18(1), 140-163.
- Carrington, S. J., & Bailey, A. J. (2009). Are there theory of mind regions in the brain? A review of the neuroimaging literature. *Human Brain Mapping*, 30(8), 2313-2335.
- Chakrabarti, B., & Baron-Cohen, S. (2006). Empathizing: Neurocognitive developmental mechanisms and individual differences. *Understanding Emotions*, 15(6), 403-417.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
- Denham, S. A., Mitchell-Copeland, J., Strandberg, K., Auerbach, S., & Blair, K. (1997). Parental contributions to preschoolers' emotional competenc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Motivation and Emotion*, 21(1), 65-86.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ar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 241-273.
- Eisenberg, N., & Fabes, R. A., & Murphy, B. C. (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5), 2227-2247.
- Eisenberg, N., & Miller, P. (1987). The relation of empathy to prosocial and 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101(1), 91-119.
- Fabes, R. A., Eisenberg, N., & Bernzweig, J. (1990).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CCNES): Description and Scoring*. Tempe, AZ: Arizona State University.
- Fabes, R. A., Leonard, S. A., Kupanoff, K., &

- Martin, C. L. (2001). Parental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with children's emotional and social responding. *Child Development, 72*(3), 907-920.
- Fabes, R. A., Poulin, R. E., Eisenberg, N., & Madden-Derdich, D. A. (2002). The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CCNE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relations with children's emotional competence. *Marriage & Family Review, 34*(3-4), 285-310.
- Frick, P. J., & Morris, A. S. (2004). Temperament and developmental pathways to conduct problem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3*(1), 54-68.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6), 1016-1024.
- Galván, A., Spatzier, A., & Juvonen, J. (2011). Perceived norms and social values to capture school culture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2*(6), 346-353.
- Gini, G., Pozzoli, T., Borghi, F., & Franzoni, L. (2008). The role of bystanders in students' perception of bullying and sense of safety.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6*(6), 617-638.
- Gini, G., Pozzoli, T., & Hauser, M. (2011). Bullies have enhanced moral competence to judge relative to victims, but lack moral compa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5), 603-608.
- Gordon, M., Stephen, R., Carole, B., Adam, S., David, R. (1975). Class, gender, and the asymmetry hypothesi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1*(1), 1-15.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6).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the emotional life of families: Theoretical models and preliminary dat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3), 243-268.
- Hoffman, M. L. (1983). *Affective and cognitive processes in moral internalization*. In E. T. Higgins, D. N. Rubie, & W. W. Hartup (Eds.), *Social cognition and social development: A sociocultural perspective*.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ffman, M. L. (1984). *Interaction of affect and cognition on empathy*. In C. E. Izard & R. B. Zajonc (Eds.),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pp.103-131).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gan, R. (1969). Development of an empathy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3), 307-316.
- Kennedy-Moore, E., Watson, J. (1999). *Expressing Emotion: Myths, Realities, and Therapeutic Strategies*. New York, NY: Guilford Press.
- Kostelink, M. J. (1998). Misconstructing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 *Early Years, 18*(2), 19-26
- Lamb, M. E., & Malkin, C. M. (1986). The development of social expectations in distress-relief sequences: A longitudi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9*(2), 235-249.
- Lawrence, E. J., Shaw, P., Baker, D., Baron-Cohen, S., & David, A. S. (2004). Measuring empathy: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Empathy Quotient. *Psychological Medicine, 34*(5),

- 911-919.
- Lewis M., & Michalson L. (1983). The Socialization of Emotion. *Children's Emotions and Moods*. Boston, MA: Springer.
- Lipps, T. (1903). Einfühlung, inner Nachahmung, und Organ-empfindungen. *Archiv für die gesamte Psychologie, 1*, 185-204.
- Macklem, G. L. (2003). *Bullying and teasing: Social power in children's groups*. New York, NY: Kluwer Academic/Plenum.
- Maeda, R. (2004). Empathy, emotion regulation, and perspective taking as predictors of children's participation in bully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 Miller, P. J., & Sperry, L. L. (1987). The Socialization of Anger and Aggression. *Merrill-Palmer Quarterly, 33*(1), 1-31.
- Molnar, B. E., Buka, S. L., & Kessler, R. C. (2001). Child sexual abuse and subsequent psychopathology: Results from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1*(5), 753-760
- Muncer, S. J., & Ling, J. (2006). Psychometric analysis of the empathy quotient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40*(6), 1111-1119.
- Nesdale, D., & Scarlett, M. (2004). Effects of group and contextual factors on pre-adolescent children's attitudes to school bullying.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8*(5), 428-434.
- Nickerson, A. B., Mele, D., & Princotta, D. (2008). Attachment and empathy as predictors of roles as defenders or outsiders in bullying interaction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6*(6), 687-703.
- Nickerson, A. B., & Nagle, R. (2004). The influence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s on life satisfaction in middl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 35-60.
- O'Connell, P., Pepler, D., & Craig, W. (1999). Peer involvement in bullying: insights and challenges for intervention. *Journal of Adolescence, 22*(4), 437-452.
- Olweus, D. (1978). *Aggression in school*. Washington, DC: Hemisphere.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Oxford, UK: Blackwell.
- Rigby, K. & Johnson, B. (2006). Expressed readiness of Australian schoolchildren to act as bystanders in support of children who are being bullied. *Educational Psychology, 26*(3), 425-440.
- Rohener, R. P., & Pettengill, S. M. (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2), 524-528.
- Saarni, C. (1990). *Emotional competence: How emotions and relationships become integrated*. In R. Q. Thompson (Ed.), *Socioemotional Development* (pp.115-182).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Sainio, M., Veenstra, R., Huitsing, G., & Salmivalli, C. (2010). Victims and their defenders: A dyadic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3*(2), 144-151.

- Salmivalli, C., Lagerspetz, K., Bjorkqvist, K., Osterman, K., & Kaukiainen, A. (1996). Bullying as a group process: Participant roles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status within the group. *Aggressive Behavior, 22*(1), 1-15.
- Salmivalli, C., Voten, M. (2004). Connections between attitudes, group norms, and behaviour in bullying situ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8*(3), 246-258.
- Salmivalli, C., Voten, M., & Poskiparta, E. (2011). Bystanders matter: Associations between reinforcing, defending, and the frequency of bullying behavior in classrooms.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0*(5), 668-676.
- Shamay-Tsoory, S. G., Aharon-Peretz, J., & Perry, D. (2009). Two systems for empathy: A double dissociation between emotional and cognitive empathy in inferior frontal gyrus versus ventromedial prefrontal lesions. *Brain, 132*(3), 617-627.
- Stern, D. N. (1985). *The interpersonal world of the infant: A view from psychoanalysis and developmental psychology*. New York, NY: Karnac.
- Sutton, J., & Keogh, E. (2000). Social competition in school: Relationships with bullying, machiavellianism and personality.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0*(3), 443-456.
- Sutton, J., & Smith, P. K. (1999). Bullying as a group process: An adaptation of the participant role approach. *Aggressive Behavior, 25*(2), 97-111.
- Swearer, S. M., Espelage, D. L., & Napolitano, S. A. (2009). *Bullying prevention and intervention: Realistic strategies for schools*,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Thompson, R. A. (1987). *Empathy and emotional understanding: The early development of empathy*. In N. Eisenberg & J. Strayer (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pp. 119-14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lden, T. A. (1991). *Infant social referencing*. In J. Garber & K. A. Dodge (Eds.), *Cambridge studies in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pp. 69-88).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rden, D., & Mackinnon, S. (2003). Prosocial children, bullies and victims: An investigation of their sociometric status, empathy and social problem solving strategie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3*(4), 455-472.
- Walsh, C., Macmillan, H. L., & Jamieson, E.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substance abuse and child maltreatment: Findings from the Ontario Health Supplement. *Child Abuse & Neglect, 27*(12), 1409-1425.
- Wentzel, K. R., Filistetti, L., & Looney, L. (2007). Adolescent prosocial behavior: The role of self-processes and contextual cues. *Child Development, 78*(3), 895-910.

1차원고접수 : 2019. 01. 11.

수정원고접수 : 2019. 02. 20.

최종게재결정 : 2019. 02. 28.

The effect of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al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on defender's role in bullying: The mediating role of children's empathy

Jae-Jin Ok

Yoon-Kyung Jeong

Department of Psychology,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resent study i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child empathy on parental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 and the defender's role in bullying. To this end, 384 fifth and sixth graders were asked to complete questionnaires including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 Scale(CCNES), Children's Versions of the Empathy Quotient(EQ-C) and Participant Role Questionnaire(PRQ). Our results reveal that supportive parental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both cognitive and emotional empathy. Also, empathy is significantly related to children's defense responses for victims and is negatively related to bullying-supporting and onlooking behaviors.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cognitive empathy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bullying-supporting responses both in male and female students, whereas emotional empath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bullying attitudes. Finally, supportive responses for children's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s were found to influence the defense responses of bullying victims through building empathy in children.

Key words : parental reaction to child's negative emotions, participant roles in bullying, cognitive empathy, emotional empathy